연령대별 가계저축패턴 분석

김선희, 김연주 (성신여대 가족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차경욱 (성신여대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가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재무목표를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계의 현재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가계의 부를 다양한 자산 유형에 배분하여 가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Xiao, 1995). 또한 각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의 흐름이 달라지므로, 개인과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이전시키기도 하고, 미래의 소득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유보하기도 한다(Ando & Modigliani, 1963). 이처럼 가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각기 다른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과 소비 흐름의 불일치를 조절하고 자산관리를 하므로 가계의 생애주기단계 및 연령대에 따라 저축 및 투자행동 역시 상이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6) 자료를 사용하여, 각 가계를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구분한 후, 연령대별 가계저축포트폴리오의 저축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8,26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각각 20대(n=345), 30대(n=1,748), 40대(n=2,557), 50대(n=1,769), 60대 이상(n=1,848) 가계로 분류하였으며, 가계저축포트폴리오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 적립식 저축, 저축성보험, 목돈예치저축, 주식·채권, 곗돈불입금, 빌려준 돈을 포함하였다. ANOVA분석을 통해 각 연령대별 저축유형별 저축규모 및 구성비를 비교하였으며, 저축규모는 보유자 평균액수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령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형별 저축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유형의 저축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입출금 저축유형은 전체 가계의 96.8%가 보유하고 있었고, 연령대별 보유율을 살펴본 결과 역시 대부분의 가계가 수시입출금의 저축유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시입출금 저축규모는 50대와 60대 이상 가계가 각각 850만원과 835만원으로 다른 연령대 가계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식 저축유형은 전체가계의 46%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51.3%)와 30대(54.7%)가계의 보유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적립식 저축규모는 50대가 약 2,087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40대(1,419만원), 30대, 2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전체보유율이 72.6%로 비교적 높았고, 각 연령대별로는 30대(84.3%)와 40대(82.8%)의 보유율이 높았고, 60대 이상가계의 보유율은 43.8%로 가장 낮았다. 저축성보험의 규모는 40대 가계가 1,930만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가계는 660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저축성보험의 보유율이 가장 낮았던 60대 이상 가계의 저축성보험 규모는 1,011만원이었다. 목돈예치저축은 전체 보유율이 37.7%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보유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상의 보유율이 26.1%로

가장 낮았다. 저축규모로는 50대 가계가 6,15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고, 20대 가계는 1,554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았다. 주식 및 채권은 전체 가계의 10.7%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주식·채권 보유율을 보인 가계는 50대 가계(19.1%)였다. 60대 이상 가계는 주식·채권 보유율이 7.2%로 낮았으나, 규모는 4,848만원으로 가장 컸다. 곗돈불입금은 전체보유율이 9.5%였고, 각 연령대별 저축규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의 19.9%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으며, 규모로는 50대가 3,194만원으로 가장 컸고, 60대 이상(3,020만원),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연령대별로 저축유형별 구성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가계는 60대 이상(42.8%)가계였으며, 30대 가계가 20.6%로 가계포트폴리오 중 가장 낮은 수시입출금 비중을 나타냈다. 60대 가계의 경우 은퇴상태에 있는 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노후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저축유형으로 수시입출금을 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적립식 저축유형의 구성비는 20대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14.6%), 40대 (11.5%), 50대(11%), 60대(6.1%)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와 30대 가계의 경우 결혼자금마련, 주택마련 등의 재무목표에 당면해 있어,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주택청약저축(부금) 혹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축성보험은 30대가 41.2%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고, 다음으로 40대(38.7%), 50대(31.5%), 20대(27.9%), 60대(13.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미래를 대비한 보험권 저축의 비중이 전 연령계층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양세정(199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목돈예치저축유형은 60대 이상 가계의 구성비가 29.3%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 가계가 각각 12.6%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60대 이상의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목돈예치 저축유형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식·채권 저축유형은 40대(3.2%), 30대(2.7%), 50대 및 60대 이상(1.9%), 20대(0.9%)순으로 나타나 중년기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식·채권의 구성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식·채권의 구성비중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곗돈불입금의 구성비는 20대와 40대 가계가 1.4%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0.7%)이 가장 낮았으며, 빌려준 돈의 구성비는 40대 가계가 7.7%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령대별 가계의 저축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비를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40, 50대 중년기 가계의 자산규모가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저축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저축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살펴보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